

2025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회
특별호

금속노동자

ilabor.org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발행인: 장창열 전화: 02-2670-9507 주소: 서울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5층 선전홍보실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회

2025년 3월 04일(화)~3월 14일(금)

(re)UNION
노동조합

02 특집 그만하라 했다. 금속노조 부른다 했다
공장을 나와 광장으로, 광장에서 새 세상으로

지난 국면과 광장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금속노조가 그리는 새 세상의 상과 2025년 투쟁 과제를 제시한다. “그만하라 했다. 금속노조 부른다 했다”는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시민이 위험할 때 경찰보다 금속노조를 부르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04 시민기고 금속노조가 왔다
위원장 담화 2025년을 총파업의 해로 만들시다
기획 2025년 금속노조 투쟁 흐름

그만하라 했다 금속노조 부른다 했다

“그만하라 했다. 금속노조 부른다 했다”는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이번 윤석열 퇴진 국면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시민이 위험할 때 경찰보다 금속노조를 부르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금속노조의 힘과 지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보여준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대통령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시민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국회로 향했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향한 시민과 국회의원을 경찰이 막아서는 사이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출동하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12월 3일 즉각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부터 금속노조는 저항의 최전선에 선다. 재갈을 물린다 해서 입을 다물지 않으며, 족쇄를 채운다 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곤봉으로 때린다고 해서 가만히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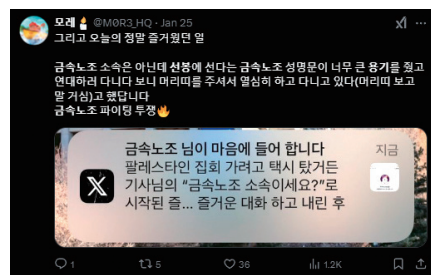
3일 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스피커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 해제를 위해 속속 국회로 모인 시민들을 하나로 묶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3년 3월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다. 군경과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김선영 지회장은 용기를 내 시민들을 위한 스피커를 설치했다.

시민들의 엄호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2월 4일 오전 1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은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계엄과 동시에 정치인, 노동조합 활동가 등 반대파에 대한 체포, 구금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정치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였던 셈이다. 군부 독재 이후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의 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12월 3일 이후 SNS에서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겠다는 성명에 감동과 용기를 얻은 시민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금속노조의 성명을 보고 용기를 내어 국회로 갈 수 있었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들이 금속노조 성명에 힘을 얻은 것은, 금속노조가 퇴진 투쟁 선봉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매번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민주노총 행진 1호 차는 대부분 금속노조 몫이었다. 금속노조는 2024년 3월 20일 투쟁선포식부터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전면화하고, 조직 노동자의 힘을 시민들에게 증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4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5·6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경남 현대모비스, 경주 발레오만도 등 주요 지부·지회가 지침에 따라 총파업 돌입하며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윤석열 퇴진과 내란세력 청산을 걸고 11일 다시 한번 총파업을 단행했다. 기아자동차 지부, 충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이 파업에 동참했다.

다만세, 남태령, 투쟁사업장까지

12월 7일 민주노총이 길을 열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날 100만에 달하는 시민이 국회 앞에 모였다. 밀려드는 인파에도 경찰은 국회 정문 앞 도로를 열지 않고 통제하려 시도했다. 집회 대오가 받는 압력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결단했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 정문 앞은 광장이 되었다. 시민들은 민주노총에 환호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부결됐다.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 사이에 짝지 않은 적막이 흘렀다.



다음은 기약하며 다수 조직노동은 깃발을 내렸지만, 시민들은 광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환호했다. 응원봉은 별처럼 빛났다. 한 점으로 모였던 광장의 에너지가 흩어지거나 무질서하게 폭발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하는 순간이었다.

12월 14일 돌아온 토요일, 국회가 다시 한번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들어갔다. 마침내 국회는 재적 300명 중 300명 참석,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표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든 눈부신 성과였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고,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는 사이에, 시민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시민들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갔다. 12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대오가 서울과 과천의 경계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에 막혔을 때다.

광화문에서 퇴진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남태령으로 몰려들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남태령으로 몰려들었다. 1박 2일 이어진 대치 끝에 농민과 시민들은 서울에 진입, 한남동 관저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춥고 긴 겨울 밤 농민들과 시민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마침내 서로 이해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전농은 같은 방식의 투쟁을 전개했지만, 결국 양재IC에서 경찰에 의해 물러나야 했다. 2024년은 달랐다. ‘남태령’



을 거친 시민들은 노동자와 만나 한 국옴티칼하이테크지회에 다 쌓지도 못할 만큼의 ‘물 연대’를, 거제통영 고성조선하청지회와 만나 수백 건의 ‘파업기금 모금’을, 자동차판매연대지회와 만나 쏟아지는 ‘김 주문’을 만들어냈다.

내란수괴, 금속노조가 잡으러 간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한 채 2025년이 밝았다. 1월 3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투쟁 선언을 선언했다. 이어 금속노조가 ‘내란 수괴 잡으러 간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들은 트위터, 전화 등으로 금속노조에 환호하는 한편, ‘다치지 말라,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한남동 대첩’의 시작이다.

한남동 관저 앞까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진격했다. 민주노총은 ‘한남동으로 와달라’며 시민들을 불렀다. 시민들이 응답했다. 1박 2일로 예정했던 투쟁은 3박 4일 동안 이어졌다. 수많은 시민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쏟아지는 눈을 맞았다. 눈이 잠깐 잦아들었을 때, 금속노조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펼쳐 들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이육사 시에 나오는 ‘강철 무지개’가 떴다며 환호했다. 한남동 관저 앞은 이육교 수많은 깃발과 응원봉, 추위를 막기 위해 두른 은색 방열 담요를 두른 사람들도 가득 찼다. 3박 4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끝에 노동자, 농

민, 여성, 젠더퀴어, 장애인 등 모두는 마침내 광장에서 ‘우리’가 됐다.

알고 있어.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열광과 기대의 배경은 무엇일까? 불법 계엄과 퇴진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낳은, 특별한 상황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금속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사실 그간 금속노조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 그동안 금속노조가 접해왔던 시민 반응은 대개 부정적인 것이었다. 부정적인 여론은 긍정적인 여론보다 더 드러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금속노조를 응

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속노조가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대중교통 광고 사진을 찍어 갖고 있다가 이번 국면에 스스로 소개하는 시민이 있다. 자신의 지역에 금속노조 커피 트럭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웠다는 시민이 있다. 금속노조가 투쟁으로 주5일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시민이 있다.

시민들은 금속노조가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금속노조에 열광하고 기대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서로에게 말 걸고, 대화를 나누고, 알아갈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1월 7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한화 본사 앞에서 농성을 위한 텐트를 설치하다가 용역에 의해 저지당한 채 한겨울 밤샘 투쟁에 돌입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한밤중에 달려와 지회 곁을 지켰다. ‘메탈 말벌’의 등장이다. ‘나는 자연인이 다’에 출연한 ‘말벌 아저씨’처럼 금

속노조가 위협에 처하면 달려오는 시민들을 의미한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월 8일 시민들의 도움으로 한화 본사 앞 농성장을 설치하고, 설 명절 동안 시민들과 함께 희망 조선소를 운영해 ‘연대투쟁호’를 만들었다. 지회는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평등수칙을 제정하고, 끊임없이 대화했다. 그 과정에서 지회는 평등과 연대라는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스를 차려 금속노조 스티커를 나누고, 나만의 피켓 만들기를 진행했다.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을 알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 커피 트럭, 어묵 트럭, 간식, 손난로 배포와 함께 설문조사를 전국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만약 시민들이 없었다면 연대투쟁호가 광장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금속노조가 없었다면 윤석열 퇴진 투쟁이 힘 있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파면 이후 다시 만날 세계에서 금속노조와 시민은 언제까지라도 서로가 필요하다.

공장을 나와 광장으로, 광장에서 새 세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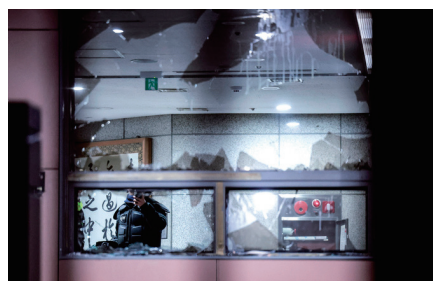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범죄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조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지만, 극우세력은 계속해서 광장에 집결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화문 극우 집회 인원은 계속 늘고 있다.

여론조사를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한때 바닥을 찍었던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답변 역시 30%로 결코 적지 않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극우세력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자 수백 명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문제 삼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총 7명의 경찰이 습격자들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 집기 손상, 건물 손상 등 물적 피해 규모는 7억에 달한다.

수구 세력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한 위험 신호다. 법원을 파괴한 폭력이 광장에 나선 시민들을 향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광장에 나서 극우세력의 준동을 제어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젠가는 끝을 봐야 한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여, 다시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끝 그 자체는 아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을 우리 스스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광장의

열기와 희망을 노동 현장에 불어넣어야 한다. 현장의 동력을 통해 노동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금속노조, 새 세상으로

금속노조가 꿈꾸는 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한 세상이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노조 파괴 손배가압류가 금지된 세상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된 세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세상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받는 세상 ▲산별노조를 법제화한 세상. 금속노조가 그리는 노동중심 민주주의다.

둘째, 시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세상이다. ▲성평등한 세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소수자를 보호하는 세상 ▲저출생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

고 키울 수 있는 세상 ▲동성혼과 시민결합을 법제화한 세상 ▲노인 빈곤을 해결한 세상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전 사회가 나선 세상. 금속노조가 시민과 함께 꾸는 꿈이다.

셋째, 내란 공범 수구 세력을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성장한 세상이다. 한국 정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 노동자, 서민,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가꿔야 한다. 금속노조 강령에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이다.

금속노조는 한국 대표 산별노조로서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실현할 힘과 의무가 있다. 윤석열 파면 너머 내란 세력 청산까지,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금속노조 19만 조합원이 선봉에 서자.



시민기고

금속노조를 불렀다. 금속노조가 왔다

1월 1일 거제, 새해를 맞으며 내게 용기를 준 금속노조에 감사를 전했다. 내가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이다.

가장 잘 싸워왔고 싸우고 있는 자들이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는 말을 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 금속이 선봉에 선다는데' 저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 선봉에 선다면 나 같은 사람은 뒤에 서 있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경찰도 군인도 날 지켜주지 않지만, 금속노조라면 날 지켜줄 것 같았다.

금속노조의 성명문은 멈췄던 나의 용기를 다시 뛰게 하고 시체처럼 창백하던 굳은 몸에 피가 돌게 했다. 단순히 성명문이 명문이라서가 아니었다. 선봉에 선다 말할 때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자들의 외침이었기 때문이었다.

시위 초보인 나는 동지라는 호칭조차 몰라 '노조 선배님' 따라가면 안전하다며, 처음 시위하러 오는 친구들에게 무조건 노조 깃발을 찾아가라 했다. '오면 무조건 금속노조, 건설노조, 아무튼 민주노총 뒤로 가'라고 말했고 나도 쭉쭉쭉 노조 깃발 아래로 갔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위험해지면 우릴

도망치게 해주고, 뒤로 보낼 사람들이라고.

시위에 처음 나온 내게 금속노조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금속노조 깃발이 보이면 쫓아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광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평범했다. 그러면서도 강인해 보였다. 처음 깃발을 들고 간 날 깃발도 제대로 못 묶는 내 옆으로 슬쩍 와서 '좀 도와줘라'라며 주변 조합원 동지들을 괜히 타박하자 서너 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우르르 와서 깃발을 풀고 묶는 걸 도와줬다. 그러면서 핫팩은 이 친구들 주라며 핫팩을 건네줬다. 무뚝뚝했지만 손에 쥐어진 핫팩은 따뜻했다.

SNS에 금속노조의 이전 투쟁들이 올라왔다. '결사투쟁'이 저런 것일까? 이전까진 과격하고 무서워 보였던 모습들이 내 편이라 너무 좋은 강한 이들의 모습으로 보였다. 나는 생각이 변했지만, 부모님은 아니었다. 부친은 노조를 싫어하고 그 중에서도 금속노조를 가장 싫어하며, 모친도 '노조랑 엮이지 마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무지개 조선소 작업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일이란 걸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한숨과 짜증이

들렸다. 이어진 설전의 끝은 '금속노조는 오더라'였다. 엄마는 내가 전장면 시위하면서 경찰한테 끌려 나갈 때 없었지만 금속노조는 멀리 거제에서 올라와서 달려와 줬다고.

내가 위험할 때 연락하는 건 경찰도, 부모님도 아닌 금속노조였다. 그저 농담으로 돌던 '그만하라 했다, 금속노조 부른다'는 말을 했을 때 금속노조는 정말 왔다. 금속노조가 오는 걸 보며 나는 형제 없는 연대를 눈으로 본 기분이었다. 그래서 발언할 때 늘 금속노조를 샤라웃(존경의 의미를 담아 언급하는 행위)했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저항하십시오. 시민이 선봉에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길을 여십시오. 난 금속노조만큼 강하진 않지만, 연대의 힘으로 길을 열겠습니다'고 말하며 금속노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노조'라고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금속노조는, 잘 싸우고 언제나 선봉에 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타고나거나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닌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꺼이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멋진 존재들이다.

맘마(송예은)

위원장 담화

2025년을
총파업의 해로
만듭시다

1941년 네덜란드와 벨기에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유럽에서 총파업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1941년 두 나라는 나치 독일의 점령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점령군은 모든 정당과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만들었지만, 노동자는 지하조직을 통해서 파시즘과 나치의 유대인 학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행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1929년, 우리의 선배 노동자들은 조선의 가장 산업화한 도시인 원산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식민지 노동자의 파

업 투쟁은 일제에게는 두려움을, 세계 노동자에게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올해로 서른 살을 맞는 민주노총의 시작점에도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국회 날치기와 노동법 개악에 맞서 벌인 두 달간의 총파업은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지금의 금속노조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치의 지배 아래에서도,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이제 갓 민주노총을 만든 조건에서도 우리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저항했습니다. 총파업은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선배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단지 생산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심이고 주역임을 당당하게 입증했습니다.

금속노조 19만 조합원은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투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이 벌어졌고 하룻밤 만에 실패했는데도 내란 수괴가 아직도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거리에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우리의 고용을 지키는 투쟁도 민주노조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내란 세력이 꿈꾼 '파업 금지의 나라', '노조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박살 내고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투쟁이 지금 금속노조의 과제고 사명입니다.

물론 총파업이 스위치 하나 올리면 되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현장을 설득하고 조합원의 뜻을 모으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일제의 폭압이나 나치의 총부리보다 더 엄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그런 폭압을 뚫고 투쟁한 노동자들이 쌓아 올린 성과임을 가슴속에 새기고 투쟁을 조직합시다.

우리에게는 19만 조합원과 20년이 넘는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자신감의 크기가 다가오는 승리의 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19만 명 중의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곧 19만이라는 각오로 조합원 모두가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2025년
금속노조
투쟁
흐름

3~4월

- 윤석열 파면 3.15 전조합원 전국노동자대회
- 기각 시 즉각 총파업
- 산별교섭 돌입

윤석열 파면 투쟁

5~6월

- 대선 노동자 요구 의제화 (정치방침에 따른 정치 실천)
- 산별교섭 본격화
- 일괄조정신청, 쟁의권 확보

대선 투쟁

7~8월

- 노동중심 민주주의 의제 결고 7월 중순 19만 총파업
- 산별교섭 쟁취
- 산업의제 기획 투쟁

9~12월

- 노동중심 민주주의 의제,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
- 11월 전국노동자대회
- 12월 민중대회 등 전체 노동자민중 요구 결고 투쟁
- 14기 선거 돌입

노동법 개정 대정부 투쟁